

신에게 달렸다. 하지만 그의 위력은 아주 큰 것으로 나는 내가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과 사람에게 주어 능히 수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그 한 부의 법(法) 속에 담았다. 나의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와 내가 쓴 이 책을 보기만 한다면 당신은 느끼게 될 것이고, 보기만 한다면 당신은 신체가 정화(淨化)되며 당신으로 하여금 병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끔 할 것이고, 수련하기만 하면 당신은 속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수련하기만 하면 당신은 속인이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갈수록 경지가 높아지고 더욱 더 미묘할 것인데, 모두 그 책 속에 들어 있다. 그러나 수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보아내지 못한다. 당신이 한번 읽고 다 보려 한다면 불가능하다! 당신은 다만 당신의 이 경지 중에서 당신이 이해하는 이 정도만 볼 수 있다. 더욱 미묘한 것은 당신이 수련하여 올라가고 끊임없이 깊이 배우고 깊이 수련하며 깊이 봐야만 비로소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고, 비로소 보아 낼 수 있으며, 비로소 알 수 있다.

내가 말한 것이 너무나 높아서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나는 이미 2년간이나 체계적으로 설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法輪大法

悉尼法會講法

시드니법회설법

李洪志

람이 응당 알아야 할 것만 말했다. 그러므로 지금 인류 사회에 남겨진 불법은 다만 불법 중의 조그마한 한 점, 조그마한 한 점일 뿐이다. 내가 방금 말했지만, 나는 인류사회에 아주 많은 것을 남겨 놓았으며 나는 앞사람이 여태껏 하지 못한 일을 했다. 내가 쓴 이 『전법륜』은 언어가 규범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의 규범적인 언어로서는 더욱 높은 층차, 더욱 큰 내포를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어체로 썼다.

이렇게 많이 말했다. 오늘 시간이 아주 많은 것 같아 나는 여러분에게 좀 더 말해 주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앉은 어떤 사람은 아마 내가 너무 높게 말함으로써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전혀 배우지 못했으나 아주 좋다고 여겨 좀 들어보려고 온 것이며, 일부 사람은 아마 어떤 것을 좀 얻으려 하거나 혹은 내가 무엇을 연출하는지를 좀 보려고 온 것으로, 여러가지 심태(心態)를 품고 왔다. 만약 오늘 내가 여기에서 당신에게 연출한다면 당신은 허허 하고 웃으며 마치 마술을 보고 요술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할 것이며 당신은 나와 법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불법을 전함에도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에게 다만 이 불법을 말했을 뿐이며 믿고 안 믿고는 당

다고 한다. 만약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보게 한다면 속인 사회는 인류사회가 아니며 바로 신(神)의 사회이다. 이러면 백이면 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모두 수련할 것인즉 십악불사(十惡不赦)하고 더없이 나쁜 사람마저도 수련하려고 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그것이 여전히 인류사회인가? 사람이 좋지 못하게 변했기 때문에 이 환경으로 떨어져 온 것이다. 만약 당신이 되돌아가려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즉, 하나는 고생을 겪는 것이고 하나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란, 예수는 믿음을 말하고 동방에서는 깨달음을 말한다. 당신이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면 수련하지 못한다. 하지만 흔히 사람들이 수련하고자 하지만, 왜 수련하기가 몹시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수련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어려운 것은 속인의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렵다. 역사적으로 무엇이 불법(佛法)인지를 모두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가 말한 것을 체계적인 불법으로 여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방대한 우주, 그는 무척 완비하고 무척 지혜롭다. 석가모니 부처는 다만 부처 이치(佛理)의 한 자그마한 부분을 말했을 뿐이며 게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부 말해 주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사

悉尼法會講法

시드니법회설법

李洪志

1996년

을 가져왔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존재하고 늘 병이 있게 된다. 당신은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당신 역시 그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좀 낮고 고통이 좀 적은 것 같음에 불과한데, 당신은 자신이 아주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런 생존 환경 속에서 점차 사람의 본성을 잃어 가는데, 갈수록 신(神)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게다가 실증과학이 완벽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또 사람의 도덕 표준을 잃었으며 가장 위험한 경지로 미끄러져 왔다.

하지만 인류사회는 또 하나 매우 크고 좋은 점이 있다. 즉, 고생스럽기 때문에 수련할 수 있다. 왜 부처는 늘 그런 부처 경지 중에만 있는가? 왜 그는 더욱 높이 제고하지 못하는가? 왜 보살은 부처로 수련하지 못하는가? 당신이 고생을 좀 겪으려 해도 찾을 곳이 없다. 그는 미혹 속에서 불성(佛性)을 확고히 해야만 비로소 수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거기에서 전혀 미혹됨이 없어 무엇이든 다 볼 수 있다고 한다. 무엇이든 다 보면서 하는 수련은 수련으로 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련이 선차적이고 깨달음이 선차적이며 보는 것은 후차적이다. 어떤 사람은, 보면 수련하고 보지 못하면 수련하지 않겠

편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하여 낫다고 생각한다. 사실 당신도 아주 고생스럽다! 당신은 당신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전대 종교에서는 사람은 사는 것이 곧 고생이라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당신은 분자로 구성된 이런 하나의 물질 신체가 있게 된다. 다른 공간 속의 그는 분자로 구성된 이 한 층 신체가 없으며 가장 표면적인 신체는 원자로 구성됐다. 분자로 구성된 표면물질이 이 공간을 조성했다. 사람의 육체를 포함하여 역시 이 분자로 구성된 것이다. 이 한 층 물질로 구성된 이 신체, 당신은 태어나자마자 이 육체가 있게 되었다. 당신에게 이런 한 쌍의 분자로 구성된 눈을 줌으로써 당신은 다른 공간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미혹 속에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미혹 속에서 우주의 진상을 보지 못하는데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이 산다는 것은 마치 우물 안에 앉아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은데 사는 자체가 이미 아주 가련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사람은 이 신체가 있게 된 후, 신체는 괴로움을 두려워하므로 추위도 안 되고, 더위도 안 되며, 갈증이 나도 안 되고, 길을 걷다 지쳐도 안 된다. 아무튼, 당신에게 아주 많은 불편을 가져왔으며 아주 많은 고통

시드니법회설법

李洪志

1996년

나를 소개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여러분은 모두 나를 알고 있는바 내가 바로 리홍쯔(李洪志)이다. 줄곧 여러분과 만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회가 없었다. 이번에는 내가 여러분을 좀 만나 보려고 특별히 온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이 지방은 과거 이 대법을 인식하는 사람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고 또 많은 배우는 사람은 법 공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인식 역시 비교적 얕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여러분이 내가 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라고 느껴 다시 와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자 하는 많고도 많은 것을 모두 책에다 써놓았기 때문이다. 나, 이 사람은 이런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수련 중의 명백하지 않은 일을 묻는 것을 좋아한다. 이 법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 와서 나에게 이 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게 말해야 할지, 아주 얇은 인식으로 이야기한다 해도 당신에게 단번에 알게 하기는 몹시 어렵다. 만약 당신이 책을 볼 수 있고 법을 배울 수 있어 일정한 이해가 있는 다음 당신이 다시 와서 나에게 당신의 제고에 의의가 있는 일부 일들을 묻는다면, 학습이든 혹은 수련이든 당신에게 유익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오늘 기회와 인연이 성숙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왔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일부분은 아직 배우지 못했고 일부분은 아직도 동작만 연마할 뿐 법 공부를 중시하지 못하며, 일부분 사람은 비교적 좀 잘 배웠음을 알고 있다. 나는 왜 여러분에게 반드시 법 공부를 할 것을 요구하는가? 이 속에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국, 이 지방에서 기공이 광범위하게 속인사회에 보급된 지 이미 20여 년의 역사가 있는데, ‘문화대혁명’의 중기·후기에 고조로 진입했다. 그러나 이 기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말하는 사람이 여태껏 없었고, 기공에 나타난 일부 공능이라든가, 현대 과학이 해석할 수 없는 일부 현상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말하는 사람 역시 없었다. 그렇다면 기공이 나타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역사상 여태껏 기공이라고는 출현한 적이 없는데, 왜 오늘날 이 기공이

의 다른 공간 중에서는 모두 다른 공간의 광경을 볼 수 있다. 다른 공간의 생명, 그의 신체는 모두 공간 중에서 날 수 있고 떠다닐 수 있으며 모두 신체를 크게 변화시키거나 작게 변화시킬 수 있다. 현재 과학자들은 사람의 사유는 물질이며 마치 전파와 같은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당신은 전파가 물질이라는 것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간에서는 그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의 사상은 상상한 것을 실제로 생기게 할 수 있으며 당신이 생각한 것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사람은 에너지가 없으므로 그것은 생겨서 잠시 후에 흩어져 버린다. 그러나 에너지가 있는 대각자·천인(天人)·고급 생명이 생각해 낸 것은 확실히 존재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당신이 무엇을 가지려고 생각하면, 생각과 동시에 그것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예전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처는 무엇을 가지려고 하면 무엇이 있다고 하는데 대단히 자유롭지 않은가. 그러한 생명은 모두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나 인류는 이 공간으로 밀려와서는 이런 존재로 변했다.

여러분은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으로서 자신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아주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벼슬을 아주 크게 했고, 어

잡하게 변해 갔다. 어떤 생명은 이기적인 생각이 생겨 그 한 층의 생명에 대한 우주특성의 요구에서 빛나감으로써 이 한 경지 중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낮은 층차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가 낮은 층에서 또 더욱 좋지 않게 변하게 되면 그는 또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렇듯 생명은 오랜 역사의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좋지 않게 변하여 점차 한 층 공간, 한 층 공간씩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인류 이 한 층 공간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저급한 생활을 하고 저급한 방식으로 후대를 번식,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에는 인류 이 층 공간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런 각자, 고급 생명은 사람에게 다시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하나의 가장 미혹된 공간을 만들어 사람의 요만한 본성을 잃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가 되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 했다.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다. 당시 사람에게, 생명에 최후의 기회를 주고자 했을 뿐 더 많은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와서는 이 공간이 너무나도 특수한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이 공간 중의 생물은 모두 다른 공간을 보지 못하고 다른 공간의 생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

출현했는가? 게다가 하나의 수련으로 사회에서 전해지고 있다. 왜 이런가? 무엇 때문인지 아는 사람이 아주 적다. 물론 이 기공이 초기에 중국에서 보급될 때 많고도 많은 아주 좋은 기공사가 나왔는데, 그들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단지 바로 국민의 신체건강을 위하여 좀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바로 이렇듯 간단한 생각과 인식이었다.

비록 이 기공, 그것이 아주 긴 시간 보급되었고 몇 십년이 되었지만, 기공의 진실한 함의가 무엇인지를 줄곧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전법륜(轉法輪)』이 책에 기공계의 일부 현상과 왜 기공이 속인사회에서 유전하고 있는지, 기공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를 모두 이 책에 써넣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체계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수련할 수 있게끔 한, 이런 한 부의 저작(著作)이다. 많은 사람이 책을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이런 특점이 있는 것을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데, 이 책은 당신이 몇 번을 보든 당신은 모두 마치 일종의 신선한 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당신이 몇 번을 보든 같은 한 구절의 말에 당신은 모두 같지 않은 인식이 있을 것이며, 당신이 몇 번을 보든 모두 그 속의 많고도 많은 내포는 아직 보아내지 못한 느낌일 것이다. 왜 이럴 수 있는

가? 바로 내가, 사람이 수련할 수 있는지, 사람은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지, 이 우주의 특성 등등 많고도 많은 천기(天機)라고 여기는 것을 모두 체계적으로 귀납하여 이 책에 써넣었기 때문이다. 수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로 하여금 원만(圓滿)을 이루게끔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여태껏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보고 많은 것이 천기(天機)이며 많은 것이 비밀 중의 비밀이라고 느낀다. 인류로 하여금 여태껏 알지 못하게 한 것, 여태껏 인류가 알 수 없었던 것을 나는 모두 이 책에다 노출했다. 물론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함부로 천기를 누설하고 무책임하게 이런 일을 하며, 아주 높은 층차의 이치를 일반적인 이론으로 삼아 매우 평범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함부로 듣게 한다면 그는 천기 누설하는 것과 같으며 나쁜 짓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그는 반드시 응보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함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아주 낮은 층차에서 말하면, 나는, 많은 사람이 이 다년간의 기공 연마를 통해 이 기공에 아주 높은 내포(內涵)가 있음을 알고 또 사람에게 아주 높은 경지로 수련하게끔 하며, 나아가 사람으로 하여금 원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

다. 이런 방대한 물질, 그것이 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가? 사실 모두가 생명의 존재이다. 어떠한 물체이든지 모두 생명이 있는 것으로 다만 우리 속인 이 공간에 표현되지 않아 그의 생명 존재를 보지 못할 따름이다. 잠시 후 내가 무엇 때문인지를 말하겠다. 어떠한 물체든 모두 생명이 있다. 이런 방대한 물질의 운동 하에서 생명이 생겼고, 이런 생명은 더욱 높은 층차 중에서 다수는 무형적이며 소수는 인류의 형태거나 혹은 동물의 형태거나 혹은 물질의 형태거나 혹은 식물의 형태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 여기로 왔는가? 왜냐하면, 최초에는 사람이라는 이 단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우주 물질의 운동 하에서 생긴 생명은 모두 우주의 특성에 동화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주 중의 이 법리(法理)에 동화되었으며 眞(전)·善(싼)·忍(런)에 동화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眞(전)·善(싼)·忍(런) 중에서 생겨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생명이 고층공간에 많이 생기면 그의 생존환경은 복잡하게 변하며 그들 사회의 생존형식이 있게 된다. 마치 우리 인류 사회가 사람이 어떻게 생존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그의 사회형식이 존재한다. 그에게 그의 사회형식이 있게 되자 이런 생명은 점차 변화가 발생해 복

은 것으로서 진화해 온 것이 아니다. 비슷한 것이 있지만, 같은 종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물론 나는 불법을 말하기 때문에 속인 중의 이론과는 같지 않다. 우리는 더욱 높은 인식이며 진정하게 인류를 인식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사람은 원인(猿人)에서 진화해 온 것이 아니며, 우주 중에서 생긴 것이다. 여러분은 중국에 도가(道家)의 태극학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 태극학설은 음양 양기(陰陽兩氣)를 말한다. 음양 양기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혼돈 상태로, 그것을 무극(無極)이라고 부른다. 그런 다음 그것이 태극을 낳게 되어 음양 양기가 있게 되고, 그다음 태극이 만사만물을 낳았다. 이것은 도가의 이론이다. 나는 이것이 아주 과학적 이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는 한 가지 상황을 발견했는데, 물론 이는 또 나만 발견한 것이 아니지만, 이 우주 중의 방대한 물질의 운동 하에서 생명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이 물질을 보아내지 못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 공기를 사람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공기보다 더욱 미세적인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많고도 많다. 더욱 미세적인 물질보다도 더 미세적인 물질도 많고도 많

을 알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런 진정한 수련 방법을 찾지 못해 괴로워했는데, 일반적인 기공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것에 속하기에 수련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절로 가서 거사가 되었고 화상(和尚)을 사부로 모셨다. 물론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내가 알려주는데, 석가모니 부처는 그의 법이 말법 시기에는 사람을 제도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가 말한 것인데, 이 일은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축성(促成)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은, 당신이 사원 중에서나 혹은 기공 중에서 어떻게 수련했든지 간에 당신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승화하지도 못했으며 또 진정으로 제고되지도 못했음을 느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향상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출로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아주 고생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법을 얻으려는 사람을 진정으로 높은 층차로 이끌려 했다. 이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일단 정법(正法)이 전해 나오면 인심, 도덕이 되돌아 올라옴을 요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착함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수련인에 대한 요구는 일반 속인의 도덕수준을 초월하게 되므로, 그는 인류사회에 대해서 유익한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본 후 꼭 진정으로 수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사람이 되는 도리를 알게 된다. 그는 이후 아마 좋은 사람이 될 것인데, 그가 비록 수련하지는 못해도 그 역시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사회에 대해 유익한 것이다. 정법(正法)이 일단 전해 나오면 필연 이리하다. 사실 역대로 세상에 출현한 정교(正敎), 예컨대 기독교·천주교·불교·도교, 유태교를 포함하여 그는 모두 인심(人心)을 착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진정으로 수련하여 올라가려는 사람에게 법을 얻게 하고 수련하여 원만을 이루게끔 하는가 하면, 잠시 수련하여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또 속인사회 중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기회와 인연을 창조하여 장래 다시금 수련하게끔 하는데, 그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비록 종교가 아니지만, 내가 전하고 있는 기공은 높은 층차의 것으로서, 일반적인 기공이 아니다. 명백하게 말하면 기공, 그것 역시 속인 중의 것이 아니다. 기공은 무엇인가? 기공은 바로 수련이다. 그러나 그것은 태극권(太極拳)을 포함하여 가장 낮은 층차에서 수련하는 것들이다. 여러분은 태극권이 아주 좋음을 모두 알고 있는데 50년대 중국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유행했다.

은 왜 같지 않은가? 그는 모두 해석하지 못했다. 이 허점 투성이인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것이야말로 기괴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사람은 원인(猿人)에서 진화해 온 것이 전혀 아니며 매 한 시기마다 다른 생물이 존재했을 따름이다. 인류가 생존하는 지구의 대륙판은 이동을 거쳐 위치가 변경된 것이다. 지질학자는 아시아 주·유럽 주·미주·남아메리카·북아메리카의 육지를 대륙판이라고 부른다. 대륙판은 늘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 위의 문명이 물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대양 속에서 육지가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이렇듯 끊임없이 변경되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도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이라든가, 인도양이라든가, 많은 대양의 밑에 오래된 거대한 건축물이 있고 문명이 존재했던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모두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더욱 오래고 먼 연대에 존재했던 것들이다. 우리 현재의 인류는 최소한 이 몇십만 년 사이 대륙판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때에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인가? 그것은 분명 아주 오래 전 몇십만 년 전 혹은 더욱 오래전에 가라앉은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한 대륙판이 변경될 때, 위의 종(物種)은 같지 않

化)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자가 말한 것이다. 우리 수련계에서는 더욱 똑똑하게 보았다. 우리 이번 시기 인류문명 이전에 아주 많은 여러 차례의 인류문명이 존재한 것은 아주 확실하다. 도덕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가 본 것은 이러한 것으로, 나중에 이 문명은 없어졌다. 휘멸된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당시 인류의 부패, 타락한 흔적을 보아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사람은 원인(猿人)에서 진화해 온 것이라고 한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사람은 원인(猿人)에서 진화해 온 것이 전혀 아니다. 다윈의 이론은, 사람은 원인(猿人)에서 진화해 온 것이라고 한다. 당초 이 한 세트의 이론을 내놓을 때 그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내놨다. 그의 이론은 허점투성으로 완벽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가 제출한 원인(猿人)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그 진화과정, 천백만 년의 이렇게 긴 과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 왜 사람과 원숭이 사이의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가? 다른 생물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그가 말하는 진화된 동물도 중간 과정이 없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존재하는 종과 다른 대륙에 존재하는 종

이는 명나라 시대 장삼풍(張三豐)이 전한 것이다. 하지만 유전하여 온 것은 다만 품세나, 동작뿐이고 심법(心法)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것의 그 수련 지도와 매 한 층차에서는 어떻게 제고하는가 하는 이런 법을 사람에게 남겨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태극권도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경지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으며 높은 층차로 수련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비록 아주 좋은 것이긴 하나 심법(心法)을 전하지 않았다. 당시 심법(心法)이 있었지만, 남겨놓지 않았으며 후세사람에게 남겨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전하는 이 법은 체계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물론 우리 여기에는 적지 않은 신(新) 수련생이 있으므로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한 이야기가 너무 높다고 느낄 것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각종 종교가 모두 사람에게 착해지라고 하고 또 사람에게 천국으로 가라고 한다. 불교라면 당연히 극락세계인데 역시 천국이다. 역사상 어떤 대각자(大覺者)이든, 어느 성인(聖人)이든 모두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가를 말했고, 더욱 높은 경지의 표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 그 중의 이치를 말하지 않았다. 이런 대각자, 예컨대 예수, 석가모니 부처, 노자 등등은 모

두 2천 년 전후 이 시대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과 오늘날의 사람은 같지 않다. 그때 사람들의 사상은 비교적 단일하고, 비교적 순박하며, 비교적 선량하고 사상이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의 사유상태는 지금과 다르므로 그들이 그때 말한 그 법은 그때에는 작용을 일으켰으며, 말한 것이 그때에는 완전히 사람으로 하여금 원만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금 사람들의 사상은 더욱더 복잡하게 변했으며 사유방법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과거 이런 대각자가 전한 이런 것들을 현대인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경서를 봐도 모두 그 중의 진정한 함의는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 내가 법을 전함에 비록 기공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지만, 모두 내가 불법(佛法)을 전하고 있음을 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불법을 전한다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가 이야기한 말과 같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석가모니 부처가 이야기한 말로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의 사람은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의 언어는 그 당시 인류의 언어였으므로 그 당시 사람은 다 알았다. 그러면 오늘 불법을 말함에 오늘날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알 수 있다. 어떤 사

데, 역사적으로 사전시기(史前時期), 십 만년 이전 혹은 더욱 멀고 더욱 먼 예전, 일억 년도 넘는 예전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에는 줄곧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지만, 부동한 시기에 훼손되었을 뿐이다. 왜 훼손되었는가? 이는 문명이 물질적으로 아주 빨리 발전되고 기술적으로 아주 빨리 발전되어 도덕이 따라가지 못했거나 혹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이 더 존재해 내려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훼손되었다. 현대과학의 인식에 의하면 물질운동에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운동하여 일정한 형식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다른 형식이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지구는 이 우주의 운행 중에서 어느 한 별과 부딪쳐 파괴될 수도 있다. 아무튼, 어떤 원인이든지 현재 과학자들은 우리의 별에 많고도 많은 오래된 문명유적이 존재했으며 게다가 이런 문명유적은 현재로부터 모두 비교적 먼 것으로, 어떤 것은 몇십만 년 이전의 것이고 몇백만 년 이전의 것이고 또 몇천만 년 이전의 것이었음을 확실하게 발견했다. 매 한 시기에 존재한 문명, 남겨 놓은 유적은 다 같지 않으며 모두 한 시기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 문제를 사고하고 있다. 어떤 과학자는 이미 이런 하나의 논점을 제출했는데, 사전문명(史前文明)이 존재하고 사전문화(史前文

정말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으로, 그는 전반 우주의 물질 존재 형식을 인식하지 못하며 우주 특성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는 조금 만지고도 전부라고 여긴다. 그들은 단지 이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는 “오, 과학은 이러하다. 이것이 진정으로 생명·물질을 인식하는 과학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 코끼리의 전체가 어떤 모양인지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주가 무수한 겹지 않은 시공으로 구성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공간과 다른 생명 및 물질형식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두뇌가 단순하고 또 완고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미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 인류 도덕을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한 가장 관전적인 원인이다. 많은 사람이 과학이라는 몽둥이를 휘둘러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본질적인 사람의 덕성(德性)을 타격하고 있다. 위험하다! 사람에게 덕(德)이 없으면 신(神)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하늘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면 그 사람은 도태(淘汰)되고 새롭게 발전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우리 인류는 진보한 것으로 원인(猿人)에서부터 오늘날로 발전하기까지 이미 아주 휘황하다! 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람은 또 ‘당신이 말한 것은 불교 중의 경문(經文)이 아니잖은가?’라고 생각한다. 석가모니 부처는 원시육불(原始六佛)이 이야기한 법을 말했는가? 만약 미륵(彌勒)이 세상에 내려온다면 석가모니 부처가 이야기한 말을 반복할 것인가? 사람을 제도하는 각자가 이야기한 일체는 모두 자신이 증오(證悟)한 바의 법으로, 사람에게 전하여 제도하는 것이다.

나는 이 책 속에다 아주 많은 수련에 관한 것을 써넣었다. 사람의 수련은 속인에서 시작하여 발걸음을 떼는데, 원만(圓滿)에 이를 때까지 모두 법이 당신의 수련을 지도할 것이다. 나는 확실히 앞사람이 여태껏 하지 못했던 일을 했으며 더욱 큰 우주의 근본 대법을 전했다. 당신이 동서고금의 책을 다 뒤져보아도 이런 것은 없다. 내가 말한 이치는 우주의 특성이고 불법의 근본임을 진실하게 나의 언어로 그를 표현했다. 많은 사람이 책을 보고 나면 모두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리(李)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큰 학문이 있는가?”라고 한다. 그이는 동서고금의 천문·지리·역사·화학·물리·천체물리·고에너지 물리·철학, 마치 아주 많은 범주를 다 개괄해 넣은 것 같다고 한다. 사람들은 선생님의 지식이 매우 해박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속인

중의 학문으로 말하면 나는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어 부끄럽다. 하지만 이런 이론은 당신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뒤져보아도, 세상의 모든 학과를 배운다 해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웠어도 당신은 여전히 속인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 인간 이 한 층차 중의 사람으로 단지 일부 속인의 지식을 좀 더 장악했을 뿐, 여전히 속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이치, 내가 말한 것은 속인 이 층차 면의 것이 아닌, 속인 이 층차 면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속의 이치는 속인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다. 법은 우주에서 속인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일체 지식을 포함한다.

나는 매우 알기 쉽고 통속적인 속인의 언어와 기공이라는 이런 가장 낮은 수련형식으로, 가장 낮은 데서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 우주의 일체 법리(法理)를 표현했다. 이 책을 한 번 보면 당신은 그가 좋은 사람이 되는 이치를 가르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만약 당신이 이 책을 다시 한 번 보면 그가 논술하는 것은 속인의 이치가 아니며 그는 한 부의 속인 지식을 초월한 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만약 당신이 세 번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가 한 부의 천서(天書)임을 발견할 수 있고, 만약 당신이 다시 본다면 당신은 아쉬워 손을 떼지 못할 것이

학이라는 이 몽둥이를 휘둘러 우리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것 - 인류의 도덕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것이 아닌가? 과학은 德(덕)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실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신이라고 했다. 인류의 도덕관념이 정말로 부서져 없어진다면 사람은 심법(心法)의 구속이 없어지고 도덕의 규범이 없어져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감히 하고 어떤 나쁜 짓이든지 감히 하여 인류의 도덕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가장 부족한 면이 일으킨 작용이다.

내가 말한 적이 있지만, 조예가 있는 과학자라면, 그는 감정으로 이치를 대체하는 많은 사람처럼 고집스러운 인식으로 현대의 과학을 굳어진 틀에 고정하고, 실증 과학 이외의 것은 모두 과학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인류가 인식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과학적 방법으로 인식했을 때, 그것은 과학이 아닌가? 그것도 과학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을 완벽히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비로소 발전할 수 있으며 최후에는 진정하게 우주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증과학의 발전 형식은 대단히 우둔하고 대단히 느리다.

그래서 당신은 가서 물리를 배우고·화학을 배우고·천문학을 배우고·고에너지물리를 배우고·철학을 배우고·역사를 배우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배우고 저 사람은 저것을 배운다. 바로 이렇게 이 한 문(門)의 지식도 사람 자신은 일생 중 전부 터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류의 지식은 아주 보잘것없다.

내가 방금 말했지만, 당신이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고 당신이 대학에서 교수·지도교수가 되고 명망이 아무리 높다 해도 역시 속인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지식이 속인 이 층차 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또한, 우리 현재 인류의 이 실증과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현재 이 과학, 그것은 신(神)의 존재를 실증하지 못하고 다른 공간의 존재를 실증하지 못한다. 그는 다른 공간의 생명과 물질존재의 형식을 보아내지 못하고, 그는 또 인류 도덕이란 이런 물질이 사람 신체에서 체현되고 있음을 모르며, 그는 또 인류 업력(業力)이란 이런 물질이 인체주위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모두 현대 과학을 믿고 있으나 현대 과학은 이런 것을 실증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이라든가 착하고 악한 일 등 과학 이외의 것을 담론하기만 하면 모두 미신이라고 여기는데, 실제로 현대 과

다. 중국에 지금 어떤 사람은 이미 백여 번을 보았지만, 여전히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내려놓지를 못하는 데, 그 속의 내포가 너무나도 커서 볼수록 더욱 많고 볼수록 더욱 많다. 무엇 때문인가? 내가 비록 천기를 아주 많이 누설했지만, 수련하지 않는 사람은 표면밖에 보아 내지 못한다. 오로지 수련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책을 볼 때에만 비로소 그 중의 내포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수련 중에서 끊임없이 승화되기 때문이다. 왜 당신은 이 책을 처음 볼 때, 당신은 왜 그가 어떻게 하나의 좋은 사람이 되는 이치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가? 두 번째로 보면 그것이 아니며 그는 승화하게 되는가? 왜냐하면, 사람이 수련하려면 우선 속인의 이 기점(基點) 위에서 수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차 그의心性(心性)을 제고하여 더욱 높은 표준에 도달한다. 당신이 제1층차의 표준에 도달하면, 그 한 층차의 법으로 당신의 수련을 지도해야 하며, 당신이 제2층차에 도달했다면 제2층차의 그러한 법으로 그 한 경지 중에서 당신의 수련을 지도해야 한다. 당신이 끊임없이 승화하면 이 법은 그 경지 중에서 여전히 당신의 수련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어느 경지까지 수련했든 여전히 그 한 층의 법이 당신의 수련을 지도해야만

최후에 비로소 원만에 이르게 된다. 나의 이 책 속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관통시켰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으로 수련한다면 당신은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당신이 수련하여 올라가게끔 지도할 수 있다. 이 책 속의 내포는 상당히 큰 것으로 당신이 만 번을 보더라도 모두 당신의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바, 줄곧 당신이 원만(圓滿)에 이를 때까지이다.

원만의 문제를 담론하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고, 불교에서도 부처 수련을 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그들은 모두 아주 간단하게 말했으며 사람은 실제적인 수련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교 역시 수련이다. 다만 석가모니 부처든 예수든 모두 이런 하나의 상황을 보게 되었다. 우리 수련계에 한마디 말이 있는데, 즉 “수련은 자신이 하나 공은 사부에게 있다(修在自己, 功在師父).”는 것이다. 이 역시 속인은 모르는 것이다. 속인은 동작을 통하여 좀 연마하면 얼마만큼 높은 공이 자랄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웃음거리이며 전혀 불가능하다. 물론 당신이 수련하려고 생각한다면 사부가 진정하게 당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신체에 많고도

다.

사람은 대뇌의 70% 이상을 써먹지 못한다. 현대 의학도 이 점을 인식했다. 무엇 때문인가? 인류의 지혜는 억제되었는데, 부처는 왜 대지혜(大智慧), 대신통(大神通)인가? 왜 그는 무엇이든 모두 알 수 있는가? 대지대혜(大智大慧)한가? 바로 내가 방금 말한 이 이치이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이 책은 관련된 과학지식 면이 대단히 넓다!’라고 말한다. ‘선생님께서서는 아주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대학을 다니지 않았는가?’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 무엇 때문인가? 나와 여러분의 차이는 바로 나의 머리는 전부 열려 있지만, 당신들은 아니다. 이 세간(世間)의 것은 철학이요·천문이요·물리·화학·인류의 역사 등등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매우 복잡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간단한바, 모두 불법의 범위 내에 있는 가장 낮은 인류의 고만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모두 하나의 이치로서 바로 이 우주의 특성과 물질 존재의 이 한 층차의 형식이 조성한 것이며 요만한 한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류의 지혜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 사람의 대뇌가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수용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욱 많이 알려고 하여도 사람의 대뇌가 담지 못하지 않는가.

된다. 또한, 지금의 사람은 현대 과학을 지나치게 믿고 있으나 현대 과학은 원만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 이 우주 중에서 그의 인식 정도는 아주 낮다. 다시 말해서 아주 낮은 바로 이런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지나치게 믿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 즉 사람의 도덕이 철저하게 붕괴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세계에서는 도덕관념이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류의 외형이 있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인데, 귀신, 원숭이, 침팬지 등도 모두 두뇌가 있고 사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도덕규범이 있어야 하고, 사람의 도덕 표준이 있어야 하며, 사람의 생존 형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떠났다면 신(神)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고, 어떻게 발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류사회는 고층(高層)생명에게 통제되는 것으로 인류는 기술을 통해서 영원히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성구대전(星球大戰)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투심·질투심·칠정육욕(七情六慾)을 두루 갖춘 인류의 기술이 더욱 높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한

많은 이런 기제(機制)를 넣어 주고 또 당신에게 마치 씨앗과도 같이 많고도 많은 것을 심어주어야만 당신은 비로소 수련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련과정 중에 또 사부가 당신을 돌봐 주고 보살펴 주고 업력(業力)을 제거하고 당신을 도와 공을 연화해 주어야만 당신은 비로소 수련하여 올라갈 수 있다. 종교에서는 수련을 말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 예수는, 당신이 나를 믿으면 수련되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재의 종교로는 수련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한 말의 진정한 함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 사후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우리가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 다발의 속인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당신의 칠정육욕(七情六慾), 당신의 각종 집착심·쟁투심·과시심, 그야말로 이 속인의 좋지 못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다. 만약 당신을 부처의 그곳에 가게 한다면 당신은 부처와 다투고 싸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신이 속인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대보살이 이처럼 예쁘게 생긴 것을 본다면 나쁜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를 허용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속인사회에서 당신의 이런 집

착하는 것·더러운 것·좋지 않은 마음을 제거해야만 당
신은 비로소 이 경지로 승화될 수 있다. 수련해서 버릴
수 있고 믿어서도 버릴 수 있는데, 하지만 참회한 후에
는 다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면 갈수록 더
욱 좋게 되는데 천인(天人)의 표준에 도달해야만 비로
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수련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기에 천국으로 갈 수 있
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왜 가
지 못한다고 하는가? 지금의 사람은 예수가 한 말의 진
정한 함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여래 이
층차 중에 있으며, 역시 부처 이 경지 중의 각자(覺者)
이다. 그가 말한 함의를 속인은 이해하지 못한다. 오로
지 당신이 그의 방법에 따라 끊임없이 수련해야만 비로
소 그가 말한 함의를 점차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예전
대 예수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은, 당신은 내가 가르친 좋은 사람이 되는 이
치에 따라 해야 만이 비로소 정말로 나를 믿는 것이며,
비로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
다면 그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해서 뭘 하겠는가?! 당신은
참회할 때에 당신이 참으로 잘했고 심태(心態)가 참으
로 좋아졌다고 느낀다. 그러나 당신이 이 교회당의 문을

문인데, 그렇다면 신(神)도 상관하지 않는다. 현대의 사
람은 업력이 너무나 커서 갈수록 더욱 깨닫지 못한다.
그는 나쁜 일을 하여 보응(報應)을 받으면 우연한 것이
라고 여긴다. 비록 인류의 도덕표준이 대단히 심하게 미
끄러져 내려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두 자신도 모르게
이 흐름에 따라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나는 보
았다. 일부 사람의 불성·본성이 아직도 있기에 이 몇 년
간 나의 공을 전수받아 많은 사람이 수련하여 올라왔으
며 계다가 수련의 층차도 아주 높다. 개오(開悟)한 사
람이 있고 점오(漸悟)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이미 과위(果位) 중에서 수련하고 있다.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이 일을 헛되게 하지 않았다. 나
는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며 사회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
으로, 이 천기 역시 헛되게 누설하지 않았는바 사람으로
하여금 수련하여 올라오게끔 했다.

내가 방금 말한 문제는 사람이 사는 목적은 사람이 되
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이 잘 이
해하지 못하고 사람이란 당연히 이렇게 생활하게 마련
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렇다.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은 모두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공간이 존
재하고 있음을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역시 믿지 않게

하여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사실 당신은 미끄러져 내려간 이 표준으로 자신을 가늠하는데, 모두 좋지 못한 중에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좀 나은 뿐이다. 만약 당신이 수련할 수 있어 당신이 원래 인류사회의 이 경지 속으로 되돌아가서, 그리 높지 않은 데에서라도 당신이 머리를 돌려 사람과 오늘날의 인류사회를 본다면, 대단히 두려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정말로 대단히 두렵다! 당신이 보라. 지금 이 인류에게는 정말로 십악(十惡)이 모두 있다.

하늘의 대각자(大覺者)들, 부처(佛)나, 도(道)나, 신(神), 그들은 이미 오늘날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좀 단정적으로 한 것 같다. 물론 아직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리킨 것은 인류 전반의 광범위한 것으로, 정말로 이러하다. 예전에는 사람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참회할 때면 예수나, 천국의 사람이 정말로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머릿속에 이런 감응(感應)의 메아리가 있어 그의 문제에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오늘의 사람은 이러한 감각이 없으며 부처를 모시는 사람도 부처의 존재를 보지 못한다. 무엇 때문인가? 인류사회의 사람은 갈수록 더욱더 깨닫지 못하고, 인류사회의 사람은 갈수록 더욱 부패하고 있기 때

나서기만 하면 제멋대로인지라, 속인 중에서 당신은 속인보다 더 좋지 못한데 어떻게 천국으로 가겠는가? 당신의 그 마음은 전혀 제고되지 못했다. 예수는 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이 그를 믿는다면 그가 말한 것에 따라 해야만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지 않은가? 기타 종교에서도 역시 이 이치이다.

석가모니 부처가 한 일부 말을 후세사람들이 귀납하여 경서로 써냈다. 그 이후 사람들은 경서를 얼마만큼 보고 불교 지식을 얼마만큼 장악했는지를 수련으로 삼았다. 사실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경서가 전혀 없었다. 게다가 경서는 500년 이후에야 비로소 체계적으로 귀납해 낸 것으로서 석가모니 부처가 당시 이야기한 말에서 이미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그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고만큰 알게 했을 뿐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되었는데, 이 역시 필연적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는 만년에 최후로, 나는 일생에 어떤 법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는 확실히 이 우주의 법을 말하지 않았으며, 眞(眞)·善(善)·忍(忍)이 특성의 속인사회 중에서 표현 또는 여래 그 한 층차 중에서의 표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로 말하지 않았다! 그럼 여래 부처가 말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말한 것은, 그가 이전 세(世)에서 수련하여 증오(證悟)한 것과 이전 세(世)의 전생(轉生) 중에서 일부 수련한 상황, 수련이야기와 일부 법의 구체적인 표현에 대한 인식이었다. 경서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정리해 나온 것이므로 체계적이지 않다. 그럼 후세사람들은 왜 석가모니 부처가 한 말을 불법으로 간주했는가? 한 면으로 이것은 사람들의 인식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석가모니는 부처이므로 그가 한 말은 불성(佛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불성을 가진 말이라면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한 층의 불리(佛理)이며 바로 불법(佛法)이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수련의 원리, 우주의 특성,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제고하여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등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정말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앞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했으며 하나의 큰문을 열어 놓았고, 내가 하나의 더 큰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모든 수련의 이치, 원만(圓滿)의 요소를 다 말했으며 아울러 아주 체계적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단히 높은 신(神)이 당신을 사람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한 부의 사다리 - 『전법륜(轉法輪)』을 남겨 놓았다고 말한 까닭이다.

여기에서 내가 석가모니 부처보다 어떠어떠하다고 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없다. 나는 속인의 정(情) 속에 있지 않으며 세간(世間) 명리에 대한 집착이 없다. 기왕 내가 이것을 전한 바에, 나는 당신을 위해 책임지며 이 이치를 당신에게 똑똑히 알려주려 한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당신에게 한 톨도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만 당신에게 착해지라고 가르칠 따름이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묻기를, ‘스승님, 스승님은 우리에게 이렇듯 많은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렇듯 많은 것을 주었는데 스승님은 뭘 바랍니다?’라고 한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당신을 제도하려고 온 것으로 나는 당신의 그 착해지려는 마음을 제고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할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람은 모두 속인사회의 가짜 현실에 미혹되었으며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지금 인류사회의 도덕관념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감이 대단히 심하다. 사람들은 모두 이 물질 속에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으며 사회는 전체적으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자신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음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하여 좀 좋다고 생각